



하나금융투자

ELS 등 파생결합상품 3종

하나금융투자는 8일까지 초기 리자드 배리어를 낮춰 조기상환가능성을 높인 더블찬스 리자드 ELS 등 파생결합상품 총 3종을 모집한다. 홍콩지수(HSCEI), 일본지수(NIKKEI 225), 유럽지수(EURO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연4.7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9429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모집은 각 30억원 한도로, 상품 가입은 최소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김문호 기자



대신증권

펀드가입 경품증정 이벤트

대신증권이 '대신로보어드바이저' 펀드와 '대신밸류로보' 펀드에 가입하면 로보장난감과 백화점상품권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엄마, 대신 로보 해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교육자금 마련 등 자녀를 위한 장기투자를 고민중인 부모들에게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가입을 통한 수수료 절감효과를 알리기 위해 기획한 것. 대신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은 업계 최저 보수를 적용하는 로보 상품으로, 학자금 마련이나 연금 등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다. 대신 로보어드바이저펀드는 운용보수가 없이 총보수만 0.137%를 내면 된다. 대신 밸류로보펀드는 0.3~0.8%의 총보수만 지불하면 된다. /김문호 기자



SK증권

연 6.8% ELS 등 모집

SK증권은 오는 8일까지 나흘간 추가 연계증권(ELS) 1종 및 추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을 공모한다. 제2540회 ELS는 코스피200(KOSPI200) 지수, 홍콩항셍중국기업(HSCEI) 지수 및 유로스톡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5년 만기 조기상환형 원금비보장 상품이다. 세 기초자산이 매 6개월 조기상환평가일마다 최초기준가격의 90% (6·12·18개월), 85%, (24·30개월), 80% (36개월) 이상이면 연 6.80%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연 6.80% 수익을 지급한다. /손업식 기자

증시 부진에도 수탁·IB 등 수수료 증가

작년 증권사 장사 잘했다... 순익 10%↑ 4.2조

수수료수익 9.7조... 15.4% 늘어 자기매매이익 4.5조 전년과 비슷 전체증권사 자산총액 439조 달해

지난해 증시부진에도 증권사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관련 이익은 적자를 냈지만 수탁과 투자금융(IB) 등 수수료 수익이 꾸준히 늘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중 56개 증권회사의 당기순이익은 4조1736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수수료수익은 9조7154원으로 전년 대비 15.4% 늘었다. 수수료수익에서 투자금융(IB)부문은 27.4%, 자산관리부문은 10.4%를 차지했다. 수탁수수료

〈선물회사 당기순이익 현황〉

구분	'17년 (A)	'18년 (B)	'18.1Q				증감 (B-A)	증감률
	'18.1Q	'18.2Q	'18.3Q	'18.4Q				
당기순이익	137	233	61	58	54	60	96	70.0%
ROE	3.7%	6.8%	1.7%	1.6%	1.4%	2.1%	3.1%p	-

(단위: 억원)

[자료=금융감독원]

가 차지하는 비중은 46.7%로 지난 2009년 69.2%에서 20%포인트가 넘게 낮아졌다. 자기매매이익은 4조5287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식관련손익은 -1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2% 감소한 반면 채권관련손익은 6조18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3% 증가했다. 파생관련손익은 전년 대비 285.5% 감소한 -1조6441억원으로 집계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증권회사의 자산총액은 439조원으로 전년 대비 12.5% 늘었다. 부채와 자본이 각각 382조4000억원, 56조6000억원이다. 전체 증권회사의 평균 순자본비율은 54.1%로 전년 대비 37.6%포인트 하락했다. 평균 레버리지비율은 682.3%로 전년 대비 41.9%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등 대내외

재리스크 요인이 증권회사의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부동산경기 약화에 대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금융에 대한 상시점검 및 기업금융 확대 등 리스크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개 선물회사당기순이익은 233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 증가했다. 수탁수수료가 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늘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전년 대비 3.1%포인트 높은 6.8%였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선물회사의 자산총액은 4조6101억원으로 전년 대비 38.4% 늘었다.

/안성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네이버·현대百 등 대주주 지분·배당성향 낮은곳 타깃

넥스트 한진칼은 어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본격화 한국형 행동주의 펀드 움직임 벌쳐펀드 속아 '원원' 승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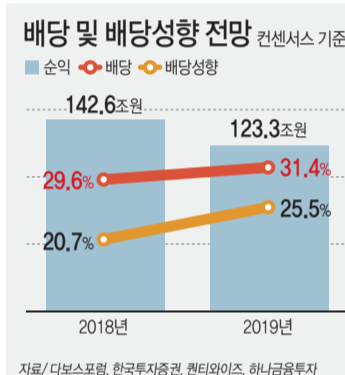
'넥스트(Next) 한진칼'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 '행동주의'는 외국계 자본의 전유물이었다. '먹튀', '벌쳐펀드'로 불렸던 소버린·갈아이칸·엘리트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 도입 등이 본격화하면서 한국형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시장에선 한진칼과 KCGI의 의결권 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8일 이후부터 '넥스트(Next) 한진칼'과 '한국형 행동주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과 싸움을 벌이는 엘리트메니지먼트 등 외국계 행동주의가 '돈' 이상을 보여주지 못해서다.

전문가들은 경영권 분쟁 등을 통해 단기 이익만을 노리는 벌쳐펀드와 기업가치를 끌어 올리는 천사표 '행동주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한다. 기업, 투자자, 수탁자 모두를 위한 '원원게임'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얘기다. 자칫 게임들이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토사구팽' 당할 수 있어서다.

5일 재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2019년 증시 최대 화두로 '주주참여 확대 및 주주환원 증대'가 떠올랐다.

당장 3월에 예정된 한진칼 주총에 이어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를 활용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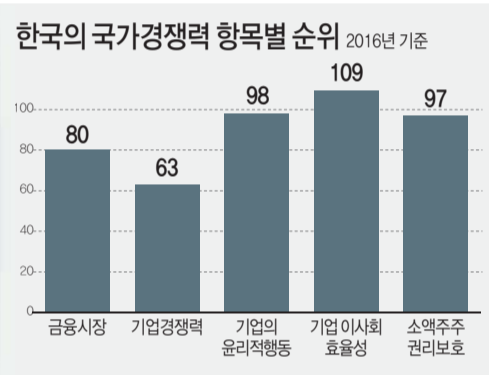


자료/다보스포럼, 한국투자증권, 컨티와이즈, 하나금융투자

주환원 확대가 예상된다. 또 올해 경영참여형(의결권 10% 취득 의무)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및 일원화 방안 처리 등도 예정돼 있다.

하나금융투자 오진원 연구원은 "증시 전반에 주주환원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연초 이후 배당 서프라이즈 발표 기업의 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019년 컨센서스에 의하면 순익 14% 감소에도 불구하고 배당은 6% 증가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면서 "특히 국민연금이 단계적인 의결권 행사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도 주주환원 증대는 지속될 중장기 트렌드"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진그룹은 한진칼의 배당성향(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배당금액)을 2017년 3.1%에서 5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포스코는 8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25% 늘렸다. LG도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2.7% 감소했지만 배당금을 53.8% 늘렸다. 삼성전자는 배당성향을 2017년 14.1%에서 지난해 21.9%로 올렸다. 롯데그룹의 시가배당률이 전년에 비해 약 1.1%포인트 늘었고 현대자동차그룹은 0.83%포인트, SK그룹은 0.6%포



인트 가량 배당률을 늘렸다. 시장에서는 첫단추인 한진칼과 현대자동차그룹의 행방에 주목한다. 주주행동주의 투자의 분수령이 될 뿐 아니라 투자 가치 측면에서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현대자동차그룹과 엘리트메니지먼트의 공방전도 시작됐다. 엘리트는 현대차에 회사가 제시한 배당보다 7배 이상을 요구했고, 현대차와 똑같이 3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행동주의 투자자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지만 이들은 성과가 저조하거나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을 제기한다"며 "행동주의 투자자들도 소수 지분 보유자로 다른 기관투자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동주의 투자자들도 소수 지분 보유자로 다른 기관투자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KCGI)과 '방패(한진)'의 양보 없는 싸움은 '넥스트(Next) 한진칼'에 주목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대형주

서는 네이버, 중형주로서는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 소형주로서는 한국단지·광동제약·조광과학 등이 행동주의 펀드에 취약해 보인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대주주 지분이 40% 이하에 머물고 15% 이하의 배당성향을 띠고 있다. 아울러 다른 기업보다 보유현금, 자사주, 자기자본 내 이익잉여금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지분율이 낮은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주사로 전환한 롯데지주의 신동빈 회장 지분율은 10.5%에 불과하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22.65%)을 포함한 대주주 지분율이 36.06%이나 소액주주 지분은 53.86%에 달한다. 글로벌 사모펀드 소버린의 공격을 받았던 SK는 최태원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88%에 그치며, LS(33.29%)와 현대중공업지주(33.31%) 등도 대주주 지분율이 30%대다.

한편에선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기관투자자의 주총을 바꾼다'란 보고서에서 "경영권과 관련한 제도들에 반기업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돼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주주 행동주의가 확산될 경우 자본시장 건전화보다는 약탈적 주주자본주의의 확산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들의 해안도 요구된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튜어드십코드, 주주활동의 근본적 목적은 투자자와 기업의 대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장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이라면서 "투자자는 기업의 성장을 응원하고 기업의 성과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로 이어져 기업, 투자자, 수탁자 모두를 위한 원원게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

HDC현대산업개발 협력사 '파트너스 데이' 개최

HDC현대산업개발은 5일 대치동 파크하얏트 서울에서 26개 우수협력사를 초청해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Best Partners Day)' 행사를 개최했다.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엔 초청된 우수협력사 대표이사들과 더불어 김대철 사장을 비롯한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은 우수협력

사 시상식을 통해 건축, 토목, 전기, 설비 등 4개 부문의 우수협력사 대표이사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 회사는 매년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기업에게 무이자대여, 2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 우선배정 등의 금융지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 사장과 26개 협력사 대표이사가 공정거래협약서에 서명하고 교환하는 공정거래협약도 맺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HDC현대산업개발 김대철 사장(맨 왼쪽)이 5일 서울 대치동 파크하얏트 서울에서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 행사를 열고 축사를 전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